



마흔으로 향하는 작가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김선일·김강훈 2인전
이달말까지 '부자풍경'
중년의 일상과 고민들



김선일의 '담' (2020).

이제 곧 마흔 살이 되는 제주의 두 작가가 미술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일상과 고민을 담아낸 작품으로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갤러리카페 거인의정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선일·김강훈 2인전 '부자풍경'이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작가로 활동하며 저마다 주목을 끌어들인 두 작가는 어느덧 아버지로 불리는 중년에 다다랐다. 이번 전시엔 아이를 키우며 아버지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바라본 세상 풍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김강훈 작가는 '비구름' 등 비오기

직전의 대지, 동네 풍경 등을 그린 회화 작품을 내놓았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한 하늘빛이 등장하는 화면엔 중국 유학 시절 언어 생활에 혼란을 겪으며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찾

기 위해 분투했던 지난 날이 스며있어 보인다. 다행히 거기에 이 땅의 모든 존재를 품어안는 바다가 있다. 조각 작업을 벌이는 김선일 작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려는

모습을 드러낸 작품을 준비했다. 군상들이 서로 몸을 밀치듯 엉켜있는 형상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우리네 삶과 닮았다. 때로 위태로워 보이는 자화상이나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랬듯 그들이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믿는다.

이들의 '오랜 벗'인 강주현 작가는 '벗에게-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라는 편지글 형식의 전시 서문에서 '언어'를 매개로 두 사람의 작품을 멋스러운 서사로 읽어냈다. 강 작가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모습의 나를 발견하는 일일지 몰라"라며 두 작가의 여정에 가족이라는 존재가 새로운 창작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제주섬 지키는 이름없는 영혼들

오미경의 '기억을 바라보다'
설문대센터 여성작가 지원

유년의 기억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던 오미경 작가가 이번엔 제주의 역사와 신화를 그 기억을 확장했다.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2020 여성작가 발굴·지원전으로 마련된 '기억을 바라보다' 전이다.

오 작가의 기억엔 숲과 얼굴이 있

다. 뿌리내리지 못하는 줄기들이 떠다니는 숲 안에 눈동자가 보인다. 우릴 지켜보는 눈이면서 여태껏 감기지 못한 눈이다. 70여 년 전 제주섬을 뒤흔들었던 4월의 광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오 작가는 섬을 지키는 영혼들을 불러와 무명의 그 얼굴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말자고 한다.

'바람의 숲', '낮은 이미 지나고 밤은 아직 아니다', '무명의 빛', '아

직 있다'. '좁은 종이를 펼치는 방식' 등 30여 점이 나왔다. 종이에 펜과 수채, 콩테, 색연필, 캔버스에 아크릴 등 재료의 제한없이 풀어낸 평면 작업을 볼 수 있다. 지난 16일 시작된 전시로 이달 29일까지 계속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영상 갤러리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경력단절 제주 여성 예술인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13명을 선정해 전시실 대관, 도록 제작과 작품 설치 등 전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다.

전선회기자



'좁은 종이를 펼치는 방식' (2020).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3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멘. "하르바지-물 질레 갓당 오쿠다." 하르바지 골멘. "아니여, 이제 물 안 질레 와도 꿩겨. 갓당 툰 소쿠리에 넣어 놔사 꿩겨. 이래 왕 갓당이 들어나지 안하게 잘 보라." 오맹이 골멘. "에- 소쿠리 나신디 좁서. 소쿠리가 크난 갓당이 툰 담아도 꿩쿠다. 들어나지 못 하게 잘 보려보쿠다. 누남- 갓이 소쿠리에 너넨 놔사난 경 알양 십서양." 좁네 골았저. "기어. 물 잘 빠지게 혁염사라 갓이 범벅 땡글 거난 툰저 물에 장물 낭 간 맛차사겨. 아고- 모벌 7글 맛양와사 흘 건디게."

* 제주어 풀이

- *갓당 오쿠다 : 갓다 올게요. *안 질레 와도 꿩겨 : 안 길어 와도 되겠다.
- *넣어 놔사 꿩겨 : 넣어 놔야 되겠다. *들어나지 못 하게 : 달아나지 못 하게.
- *보려보다(부려보다, 바려보다, 바러보다, 배려보다, 배러보다) : <움직>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바라보다.
- *경 알양 십서양 : 그리 알고 있으세요.
- *문저(무너, 무네, 문저, 문제, 문침, 모너, 모네, 문저, 문침) : <어찌>먼저.
- *장물 낭 간 맛차사겨 : 간장을 놓아 간을 맞춰야겠다.
- *모벌 7글 : 메밀가루. *맛양와사 흘 건디게 : 갓고와야 할 건데.

고재만 화백

서귀포예당서 풀어낼 두 개의 사랑

26일 '이중섭과 슈만...'
27일엔 '사랑의 묘약'

서귀포예술평의전당이 빛깔 있는 공연으로 11월을 붙잡는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 '이중섭과 슈만'의 사랑이야기, 국립오페라단 초청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다.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공연되는 '이중섭과 슈만의 사랑이야기'는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무대다. 슈만의 '로망스 작품 번호 94',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작품 번호 60' 등에 화가 이중섭의 인생을 엮는다. 바이

올리니스트 임흥균(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비올리니스트 김상진(연세대 교수), 첼리스트 진민수, 피아니스트 문정재가 연주를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진한나가 해설에 나선다.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귀익은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이달 26일 오후 7시30분부터 해설이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권성준 지휘로 코리아오페스트라가 연주를 벌이고 연출자 이의주가 해설을 맡는다. 테너 김훈, 소프라노 오신영, 베이스 최궁석 등이 출연한다. 두 공연은 서귀포시 유튜브 채널 '피아노 4중주 작품 번호 60' 등에 생중계로도 즐길 수 있다. 문의 760-3365. 전선회기자

문화가 쏘다

도박물관 부윤자 서예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속 갤러리' 여덟 번째 초청 전시로 이달 24일부터 부윤자 서예전을 열고 있다.

부윤자 서예가는 이번 전시에 이건의 '제주풍토기'를 비롯 광혜군, 이덕무, 추사 김정희, 박지원 등이 남긴 글귀를 붓글씨에 담았다. 부윤자 서예가는 1982년과 1998년 지방행정공무원미술대전 대상 수상 경력이 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시는 12월 6일까지 계속된다.

탐목서연회 회원전 개최

탐목서연회가 이달 25일까지 KBS 제주 1층 전시실에서 일곱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양상철 서예가의 지도를 받는 탐목서연회는 이번 전시에 한문 행초서, 예서, 전서, 갑골문, 한글, 캘리그라피 등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회원들의 공모전 입상작도 나왔다. 전시장엔 서예체험부스가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나만의 새해 달력 만들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품작은 탐목서연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중섭스튜디오 작가 모집

서귀포시는 이달 27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2기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회화(서양화, 동양화, 판화 등) 부문 4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 없는 국내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11기까지 총 80명의 작가들이 입주했다. 문의 760-3561.

문화예술교육 성과 발표회

제주아트센터는 이달 25일과 27일 오후 7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 음악회를 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인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제주 정작민, 청소년, 음악애호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합창, 관악기 실기, 청소년오페라, 고전음악감상 등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제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청소년뮤지컬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교육 과정을 늘렸다. 문의 728-1509.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수익성 높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품질 종묘 생산으로 고객분들께 품질만족과 좋은가격으로 묘목을 공급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히트예감
연내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미니향 히트예감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과수농가 추천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일남일호

2~7년생

가정원예(조경수), 하굴, 팔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수익성 높고 경쟁력있는 우량품종 공급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상기 국내 육성 신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 보호를 받는 과수 품종으로 무단 증식 및 판매는 불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제주지회 우수 묘목업체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땅과 정성이 담긴 제주의 명품을 빠르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감귤농업발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서귀중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697번지
Mobile : 010-2693-1336 / Tel : 064-733-7005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07-20-19호

푸른자게 장원농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촌리 3083
Mobile : 010-4450-4316 / 010-6550-4316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Mobile : 010-6500-2329 / 010-4736-2479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민성중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013-1번지
Mobile : 010-3694-5423 / 010-8948-1082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위 업체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묘목인가 회원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